

미국

양계산물 생산량 추이

미국은 지난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축산과 관련해서도 광우병 파동,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 쇠고기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양돈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생산과 소비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소비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금육과 관련해서는 칠면조고기가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닭고기 소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란의 경우 금년에도 소비와 생산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미농무성(USDA)은 밝혔다.(WP)

표1.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추이(kg)

축 종	2000	2001	2002(예상)	2000/2002(%)
쇠고기	31.5	31.0	29.8	-5.4
돼지고기	23.9	23.1	23.5	-1.6
닭고기	34.9	34.5	34.9	0
칠면조고기	8.1	8.1	8.3	+2.5

표2. 연간 축산물 생산량 추이(백만톤)

축 종	2000	2001	2002(예상)	2000/2002(%)
쇠고기	12,168	11,840	11,511	-5.4
돼지고기	8,603	8,549	8,693	+1.0
닭고기	13,861	14,090	14,454	+4.3
칠면조고기	2,455	2,504	2,590	+5.5

표3. 계란 생산 및 소비량 추이

년	1999	2000	2001	2002(예상)	2000/2002(%)
생산량(개)	69,996	71,448	72,768	74,040	+5.8%
1인당소비량(개)	256	258	260	263	+2.7%

독일

케이지 사육 금지 조치 난항

독일 정부가 동물복지차원에서 오는 2006년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케이지 사육을 전면 중단키로한 결정에 대해 독일의 가금생산자조합(ZDG) 및 연구기관에서 반기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가금생산자조합 및 이를 연구한 본대학의

레베 교수도 가축복지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닭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수준의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케이지 사육을 전면 중지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금지조항을 수정할 것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방사를 권장하는 이러한 정책은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로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만약 케이지 금지조치로 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鶏鳴新聞)

필리핀

Green chicken의 새로운 돌풍

필리핀의 Albey지방에서는 최근 토종닭의 일종인 Green chicken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닭고기의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 축산물 생산지인 Malinao와 Albey지방에서는 절반 가까운 양계장에서 Green chicken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 품종은 칠면조처럼 크고 초원에서 자라는 풀은 물론 곤충들까지 잡아먹는 등 대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리핀 내에는 화이트 코니쉬를 포함해 6종의 토종닭들이 사육되고 있는데 Green chicken은 이 품종들과는 상관없이 필리핀의 토종닭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Green chicken은 충분한 사료로 키울 경우 5~8개월 내에 7~8kg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P)

일 본

제1회 양계학습 강좌 실시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 양계 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제1회 양계학습 강좌를 실시하여 좋은 반



응을 얻었다. 기후현에서 3일간 실시한 이번 강좌는 농장에 근무하는 90여명의 젊은 양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닭의 정의, 계란, 영양과 사료, 닭질병, 경영, 해부실습, 채란양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 등에 대해 폭넓은 교육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3일간 숙식을 같이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통해 농장경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鶏の研究)

멕시코

금년 닭고기 생산 증가, 계란 생산 제자리 예상

금년도 멕시코의 양계경기 전망에 따르면 가금육의 경우 인구증가, 적정가격 유지, 환율 안정, 소비증가 등의 원인에 힘입어 3.3%의 생산 증가가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가금육 소비의 10%에 해당하는 칠면조의 경우 2.7%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특히 닭고기는 수직계열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이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계란의 경우 지난 2년 동안의 과잉생산과 낮은 가격형성으로 생산량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PI)